

ART

EDITOR WANG MINAH COOPERATION MMCA

KOREA ARTIST PRIZE 2016





올해의 작가상 2016

2010년까지 열여섯 해를 이어왔던 〈올해의 작가〉전을 모태로 한 국립현대미술관의 정례 전시 〈올해의 작가상〉이 올해 5회째를 맞았다. 미술계와 대중 모두의 눈을 매번 모으는 건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장은 매년 열리고, 한국 현대미술은 다채로워진다.





HAM KYUNG AH

현실의 껍질 속에 감춰진 시스템의 규칙과 금기에 도전하며 모순과 부조리의 틈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작가, 함경아는 이렇게 현실과 마주하며 벌어지는 일상의 다양한 사건 속에서 작품의 소재를 발견하고 긴 호흡과 끈기로 작품을 완성한다. 전임 대통령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을 모아 한국현대사의 비극을 은유하거나, 전 세계에서 수집한 물건으로 제국주의의 부끄러운 역사를 패러디하는 식이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탈북과 정착'을 주제로 한 신작을 선보인다. 개인의 자유 의지와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 정치 시스템 속에서 탈출을 감행하는 사람의 절박함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함경아의 작품에서 첨예한 문화, 사회, 정치적 쟁점과 부조리의 영역을 감지하고 이에 저항하는 건 오롯이 관객의 몫이 된다.

올해의 작가상 2016 전시 기간 2016. 08. 31 - 2017. 01. 15

